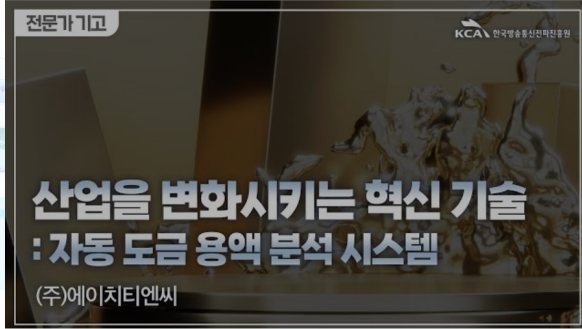


전문가기고

산업을 변화시키는 혁신 기술:
자동 도금 용액 분석 시스템
- (주)에이치티엔씨 | 이동광 대표

#자동화 #도금 #분석 #용액 #시스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글로벌 시장 동향

PCB 및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글로벌 시장은 현재 대만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4%, 한국은 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5%를 기록하며 2023년에는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ICT 기술을 활용한 자동 IN-LINE 시스템 분석기 개발

이와 같은 시장 동향에 따라 PCB 및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생산 장비에 적합한 시스템 분석기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ICT 기술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SI 기술을 접목한 화학용액 자동 IN-LINE 시스템 분석기를 개발함으로써 국외 제품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기존 제품의 단점과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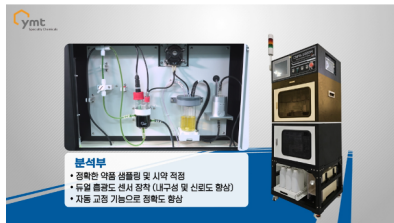


<고객맞춤 프로그램>

기존 제품은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고객사의 생산라인 운영방식에 맞춤형 제작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의 국산화와 빠른 A/S 대응을 통해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의 중요성과 적용 분야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유독물 분석에 필수적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본 생산에 사용되는 PCB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이다. 황산, 과산화수소, 구리, 니켈 등의 독성 물질을 사람이 직접 분석하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어 ISO-4500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충족시킨다.



<고객맞춤 프로그램>

ICT 기술과 시를 통한 신뢰성 향상



<ICT 기술 현장일부 적용>

자동 도금 용액 분석 시스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제품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AI 머신러닝을 통해 장비의 에러를 감출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사용자 요구 반영과 미래 발전 방향

현장 사용자들은 스마트본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그래프와 알람 확인, 기존 장비들과의 데이터 연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장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참조

- 한국 PCB & 반도체 패키징 산업협회 kpcac.co.kr
- 와이엘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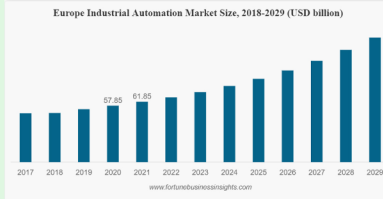
산업동향

자동화 기술의 제조업 혁신: 생산성과 효율성의 새로운 지평

#산업 #코로나 #디지털 트윈 #중강현실 #가상현실



시장현황



출처: 산업 자동화 시장 규모, 점유율 및 코로나19 영향 분석, 구성 요소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별(이산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및 지역 예측(2022-2029년)

2022년 세계 산업 자동화 시장 규모는 약 2058억 6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9년까지 3950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9.8%이다. 자동화 솔루션의 수요 증가는 주로 5G 무선 기술의 출현과 산업 4.0의 도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활용사례

산업용 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용 IoT(IIoT)는 반응성이 높은 시스템 아키텍처의 생산과 간소화에 효율적이며, 자동화 기술에서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미 산업 곳곳에서 자산을 연결하고, 빠르고 합계 투명성을 확보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Siemens는 AI,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및 고급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산업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IndustrialEdge MindSphere 및 Mendix와 같은 IIo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제조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디지털 트윈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의 출현, 클라우드 시스템, 스마트 센서 등의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의 구현과 유지 관리가 더욱 용이해졌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조직이 타당성을 이해하고 구현 위험을 줄이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물류 회사 DHL International GmbH는 Tetra Pak 장고용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여 공급망 솔루션을 통합하고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민첩한 공급망 운영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IIoT 기술이 통합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필수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중강 현실(AR) 및 가상 현실(VR)

중강 현실(AR)과 가상 현실(VR)은 비즈니스 및 운영 성과 자동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직원의 디지털 운영 기술을 교육 또는 향상시키거나, 제조 도구에 AR 기술을 통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분야에 사용된다. Siemens는 조립, 유지 관리,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AR 솔루션인 Assist AR을 제공한다. 해당 솔루션은 3D 모델을 추출하여 디지털 제조 소프트웨어와 Siemens PLM을 통해 활용되며, 향후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Digitalize, enhance, and transform business operations with AR

디지털 공급망

디지털 공급망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의 관리와 운영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분석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한다. 디지털 공급망은 자동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IoT),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동향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은 자동화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마존은 10억 달러 규모의 'Amazon Industrial Innovation Fund'를 통해 창고 자동화와 공급망 솔루션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배송 속도 향상과 물류 및 창고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선봉 기술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아마존은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 인간 노동력과 경쟁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 또한, Rightbot과 Instock 같은 스타트업에도 투자하여 자동 창고 테넌티 인로딩 시스템과 로봇시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존은 자체 운영에서도 75만 대 이상의 로봇을 배치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Proteus, Cardinal과 같은 로봇 도입업체 첨단 기술을 운영 환경에 통합하고 있다.

구글

구글은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포함한 여러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제조 공정의 최적화와 신제품 개발 속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시스템이나 공정의 가상 복제를 통해 제품 품질 개선 및 시장 출시 시간 단축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산업 자동화와 관련하여 3D 프린팅, 마신 비전, 인공지능(AI)을 통한 보다 정교한 로봇 기술의 통합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제조 공정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 제품 개발 주기를 재설정하고, AI,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산업 메타버스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 및 에너지 분야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제품 설계와 엔지니어링 과정을 강화하여, 협업과 생산성 증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산업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연구는 에너지 분해 최적화와 운영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술 통합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 지속 가능한 제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

산업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중 하나인 높은 초기 자본 투자이다.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인력 문제와 산업 자동화 기술의 효율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 간의 호환성 문제와 자동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시후 관리 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자동화 프로세스는 그 특성상 세부화되어 있어 투자 수익(ROI)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아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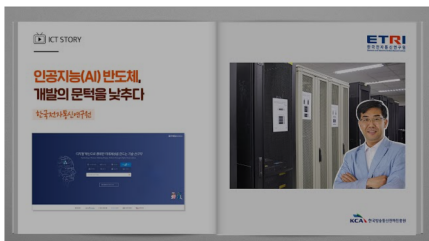
참조

- 산업 자동화 시장 규모, 점유율 및 코로나19 영향 분석, 구성 요소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별(이산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및 지역 예측(2022-2029년) [P](#)
- Digitalize, enhance, and transform business operations with AR [P](#)
- 아마존 [P](#)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 핵심 기술 및 성과

- 유선통신 기술(전선과교환기)과 무선통신 CDMA 기술(세계 최초 기술상용화)
- DRAM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선진국을 향한 초석 마련
- 시스템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지나속, 엑소브레인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
- 스포츠업 14개사, 중소 펌프스 20개사 등 34개사 공동 발동 및 48건 기술 지원



유망하지만 진입장벽 높은 AI반도체 사업



AI반도체 설계 SW 사업

인공지능 재탕 프로그램인 챗GPT와 그릴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Dall-E2 등 AI 신기술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면서 AI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센터 h반도체융합연구소(이하 SoC연구소)이다.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인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 규모는 3.5대 6.5 수준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개체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는 몇몇 대기업과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3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170억 달러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AI반도체 개발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I반도체 칩 하나를 생산하려면 3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며 설계 SW만 하나에 수십억 원이 투입된다. 제4로 설계하려면 10층 이상이 필요할 텐데, SW 개발은 수백 억 원이던 초기 단계가 되었다. 기존 중소 펌프스(Fabrics,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기업들도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하모니카할 수밖에 없다.

설계 소프트웨어 공동 사용으로 문턱 낮춰



AI반도체 연구실

정부와 연구자지는 시장 선을 위해 AI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3년까지 세계 시장의 20% 점유를 목표로 핵심기업 개발 지원, 혁신기업 육성, 산업기반 조성 등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ICT기업사업의 지원을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oC연구소는 고가의 설계 SW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설계 참가 부담을 줄이고, AI반도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 AI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SoC연구소는 2020년부터 AI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지원으로 하는 업체의 수요 조사를 통해 주요 SW를 구매했고, 스타트업은 우선순위로 해 2022년 기준 34개사가 설계 SW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 예산 투입 대비 비용 절감 효과는 2021년 272억 원, 2022년 292억 원으로 분석된다. 수혜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SoC연구소가 수행한 기술지원 실적도 2021년 52건, 2022년 48건에 달해 AI반도체 시장에 많은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설계 SW 공동 활용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사업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픈넷시테크놀로지는 2022년 코스타에 선정됐으며, 스타트업기업은 2022년 14개사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AI 반도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챗GPT 이후 세계적인 AI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AI반도체 시장은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AI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던 AI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다. 또한 기술 개발에 따라 인공지능의 보급이 핵심지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AI용 반도체 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도 기술력 있는 AI반도체 기업을 찾아 그들의 손을 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까지 장애물이 많다. 기본적인 본 사업도 대기업이 많아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시장을 할당에서 쓰는 SW들도 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설계 SW 수출 금지 여파로 설계 SW 구매에 인성되는 등 기업 지원 필요도 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면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들이 또 다른 삼성전지, 또 다른 NVIDIA가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AI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SoC연구소의 반도체 설계 지원사업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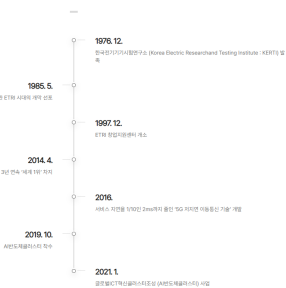
P ICT 기업 성과

- 경영지원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세무사업팀 규조형ICT혁신중소기업지원사업
- 내역사업팀 AI반도체클러스터

P 기업현황

- CEO 방승찬
- 임명 서비스통신연구원기술협력
- 설립연월 1976. 12.
- 홈페이지 www.watris.kr

TIME LINE





(주)지디엘시스템

P 핵심 기술 및 성과

- 지능형 전술데이터링크(KVMF) 기반의 지휘통제용 전장관리 및 상황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 해상 유무선 통신 기반 실시간 문자정보 공유체계, 해군·해경 간 협동작전 문자량 개발
- 사중감원시스템(AIR) 및 AVIM 기반의 지능형 상황인식 시스템으로 안전 함재 및 사고 예방 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으로 국방혁신 기여



디글러스CEO 박도근은 "육전에 심대한 지휘관은 용사들, 관제에 심대한 지휘관은 용사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관제는 국방을 지키는 기둥이기 때문. 실제로 관제에 소홀히 관제에서 심대한 사령관 역시 무수히 존재했다. 본단과 같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침투에 대해 불확실한 해안 경계에 상당한 경계를 도입하는 등 '일방 감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폭산이나 유인기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주)지디엘시스템은 2009년 설립 이후 국방 분야 일방 감시(정보통신기술)가 민간기업으로 전술데이터링크와 전장관리, 유무선 통신, 국방 MMS,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분야별 전문 분야를 통해 성장해왔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첨단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2월에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한 ICT 신기술 국방일용 제안 발표회에서 기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를 활용한 지능형 해안경비시스템 구현



지디엘시스템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해안경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ICT기업을으로 진행한 '시를 활용한 해안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은 방위사업처와 국방부, 국방연구원, 국방기술평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한 AI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해안경비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디엘시스템은 실제 관제 소초의 영상당시 및 신호처리 장비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적용한 시를 활용한 해안경비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했다. 이후 AI 적대 인식을 향상, 해안 감시 레이다, TOD, CCTV 등 해안 감시 장비 및 통합 및 실시간 상황공유체계 구축 등과 같은 시스템 고도화를 2022년까지 완료했다. 구현 시스템은 실제 관제 소초의 영상감시, 상황감시 등 통합 체계 있는 감시자신 정보를 빅데이터와 하고 AI를 활용해 목적의 상황과 이상을 영역의 구분하는 등 감시구역 내 표적에 대한 자동식별과 경고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해안 경비관력 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해안경계 무대를 중심으로 해군 공군 해안경계 및 인근 유관기관(경찰·해양)과 실시간 상황공유시스템(제1, 2) 영상 공유 등을 구축해 협동 행동 능력도 높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동시에 대응 조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성장을 위한 창의적 도전 추구

시제품 해안경비시스템의 개발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시제품 해안경비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려면 상당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안경비부대의 영상감시 데이터는 군사비밀 상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디엘시스템은 개발한 시제품을 실제 관제 소초에 설치하고, 영상감시-신호처리 장비와 연계 운영하면서 대량 데이터 영상감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창에서 영인 영상감시 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와 하고, 이를 통해 AI의 적대 및 상황 인식을 자동적으로 높여줄 수 있었다. 현재는 개발한 기술을 실 부대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에 진행 중이다. 지디엘시스템은 시제품 해안경비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부가치 창출에도 도전한다. 향후 전략적 기술 개발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그리고 지중 사격 및 해안 탐지와 같은 분야에도 시제품 해안경비시스템 기술을 노하우를 도입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디엘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에서 전략 영상 체계 수립 및 시제품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향후 기지 및 육상 지휘소에서 핵심적인 시 설치한 신의 식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고급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개발할 예정이다.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국방 해안경계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는 지디엘시스템. 미래 성장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는 그들이 그려는 안전한 미래가 기대된다.

P ICT기금 성과

- 전담기관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세부사업명 시제품 해안경비 및 지휘통신시스템(한보차)
- 내역사업명 시제품 해안경비 및 지휘통신시스템

P 기업현황

- CEO 관준홍
-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설립연월 2009. 12.
- 홈페이지 www.gdsy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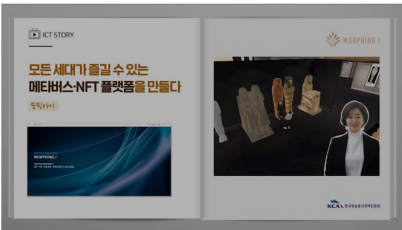
TIME LINE



㈜모핑아이

P 핵심 기술 및 성과

-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 플랫폼 및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 제공
- AI 탑재 생체인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국내 VR/AR 및 인공지능 신사업 개척
- 블록체인의 AI 기술 기반 '학습형 메타버스' 구축에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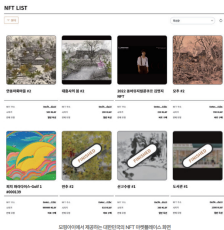
기존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문을 두드리다



스페인 마드리드 KAA DAA 컨퍼런스 참여 사진

Metaverse 위대한 언저리는 새로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메타버스·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은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자들은 자신들이 처하는 현재 새로운 세계의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모핑아이는 블록체인의 화제인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으로 지난 2021년 설립됐다. 블록체인의 언저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로켓 및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기술 융합 솔루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업형 모핑(Morphing)은 어떤 이치나 물체가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형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기술적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모핑되고 가는 과정이 되었다. 모핑아이는 자신들이 구축한 블록체인의 NFT 연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의 크리에이티브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모핑아이는 2021년 KAA/ETRI/NIPA 사업 우수 및 NVIDIA 협업 프로그램 진행, 2022년 KISA/NIPA 사업 우수, 2023년 융기부/ETRI/장학재단/교육부 등 다수의 국가/국제 및 민간사업을 우수하며 관련 분야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가상공간의 전시회에 가 보셨나요?



NFA 블록체인의 기술중심 PoC를 통해 블록체인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 비즈니스를 선도하고자 ICT기반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모핑아이는 기술을 만들어 발전시켜 더 나은 서비스 솔루션을 다들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NFA 블록체인의 기술중심 PoC 지원사업은 블록체인의 기술 보유 기업에 ICT기업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솔루션 및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해당 사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증명하는 사업이다. 모핑아이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자신의 NFT와 연계한 메타버스 2022년 동아일보가 주관한 문화융합부 NFT를 만들었다. 특히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올라온' 디지털 아트 전시회는 다양한 전시물을 NFT로 만들어 가장 공중에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ICT기반사업을 통해 모핑아이는 전시 및 뮤지엄 등의 공연예술 분야 블록체인의 시장을 계획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의 전시장에 참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및 제작사, 고객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공사례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기술을 핵심적 경쟁요소로서 실제 고객 및 파트너 기업을 확보하는 발거름이 됐다. 실제로 모핑아이는 ICT기반사업을 통한 한편으로 2022년 하반기에 인공지능 공생와 미니월드 NFT 서비스를 론칭했다.

토탈솔루션 제공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다

모핑아이는 앞으로도 AR과 블록체인의 그리고 메타버스를 위한 토탈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높은 고객적 효과를 제공해 고객들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도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 현재 기존 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해 뮤지엄에 아·공예, 무용, 연극 등 4차산업 기술이 많이 적용되지 않은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에 블록체인의 메타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NFT 마켓플레이스에도 AI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저용 토탈 솔루션, 가상 공간에서의 물리적 관람 및 가상메타버스 기술을 구현해 소비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합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차원적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연계로 이상 장후 원자 생체인양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사물과 기술 연결, 물체, 에듀테크 분야 사업)을 통해 모핑아이는 블록체인의 언저리는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학습형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을 예정이다. 국내 유수의 에듀테크 분야 기업과 MOU 및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미래 학습 메타버스, 맞춤형 학습 교육 메타버스 등 다양한 교육 학습용 아나와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 정보 및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국내 및 글로벌 다양한 AI사업 기술과 ICT 기술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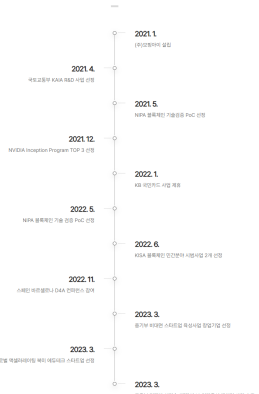
P ICT 기업 성과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새사업개발** 블록체인의 융합기반추진
- **내역사업** 블록체인의 전문기업 육성

P 기업현황

- **CEO** 김기영
- **업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통신업
- **설립연월** 2021. 11
- **홈페이지** www.morphi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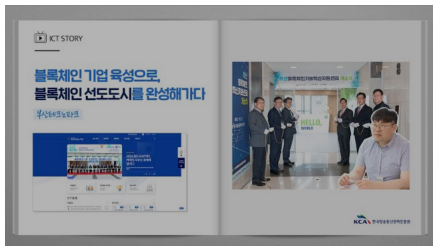
TIME LINE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P 핵심 기술 및 성과

- 세계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설립(부산)
-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첫 지자체 설립(부산)
- 국내 최초 전기차 전자제어협상시행평가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 기업지원 프로그램(블록체인 교육, 법률 컨설팅, 데모데이 등)을 통한 블록체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부산, 세계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부산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식

우라라 제2의 도사리가 등장한 역귀와 불귀리가 있는 관공저로 손꼽히는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이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은 2019년 7월 세계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1차 시범으로는 물류-금융-관광-공공안전 등 4개 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 성과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가 컨퍼런타가 돼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 기업지원센터, 지역혁신의 대학기업연구기관-지자체와 같은 산업 주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와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한다. 또한 다차원 지원관이라는 다변형의 사기제 지역의 중소기업이 선두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 육성 과 등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교두보 기술혁신지원센터

부산은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을 비롯한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산 기술육성 핵심 지원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기업사이에 지원했다. 현재 부산의 금융 중심지인 BFC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기술혁신지원센터는 위치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지만 1층부터 입주 공간 적어도 데스크톱, 차량 공간, 회의실(모니터), 회의실(2개), 라운지 등 기업지원에 위한 시설이 미비했다. 입주 기업 선정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 사업 계획 등 일컫는 기준에 따라 선별했다. 그 결과 총 15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지역 내 분사 이전 10개사, 역외 분사 이전 5개사, 지역 내 3차의 인 1개사, 자사 설립 3개사이다. 부산에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각 지역의 뛰어난 기업과 인재들을 부산으로 영입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했다. 입주율은 93%로 16개실 중 15개실이 입주해 있다. 비어 있는 1실도 7개 기업 대상 나가게 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라고 할 수 있다.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달성

이런 사업을 통해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할 뿐 아니라 입주 기업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영 관리, 기술 혁신, 자판단 운영, 네트워킹, 테스트베드, 홍보 및 사업 발굴 등이다. 입주한 기업들은 매출액, 고용, 투자 유치, 서비스 사업화 등 지표별 성과 관련도 받을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는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허출원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 지원단을 운영하고, 초청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 또 기업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 지원 및 불포급 운영 등을 통해 내외적인 홍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현재 운영기술 지원센터 및 맞춤형 사업의 지원사업들 통해 10개 기업에게 사업과 자금을 지원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플랫폼(부서) 관련 구축, 블록체인 맞춤형 교육, 법률 컨설팅, 데모데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블록체인 자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매출액은 23억 원, 신규 일자리는 14건 창출했다.

여러 산업과 융합해 발전 가능성 높아

입주 기업의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의료데이터관리, 거래 플랫폼, 보세운송차량 분산시스템 운영, 의료 정보 제공 및 의료비 지불 공제를 위한 결제 플랫폼 등이다. 그동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여러 산업과 융합될 수 있다. 분야는 다르지만 블록체인이라는 동일한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보니 입주 기업들 간 연계 협력이나 서비스를 결합하기도 한다. 예를 시민들이 사용할 만큼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열심과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곧 일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의료 데이터 산업의 경쟁으로 손꼽힌다. 가장 최근 데이터 분석 기업 메시저(Messara)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1,6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KPMG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7877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도 2021년 533억원, 2022년 5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도 많고,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킹되어 다양성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산은 정책적 사업추진에서도 환경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육성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ICT기금사업들 통해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블록체인 선도도시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한 기업 지원, 지역의 인재 육성에도 노력할 것이다. 선도하는 기술, 선도하는 도시에서 그치지 않는 부산테크노파크의 계속되는 도전 을 응원한다.

P ICT 기금 성과

- 컨설팅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세부사업별 블록체인의활용기반조성
- 내세사업별 블록체인의활용기반조성

P 기업연합

- CEO 김형균
- 임흥 기타 전문 서비스팀
- 설립연월 1999. 12.
- 홈페이지 www.btp.or.kr

TIME LINE

